

한국대학생들의 콘돔협상전략 탐색: 콘돔연구에서 협응적 관점의 제안*

허태균[†] 조자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콘돔사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콘돔태도, 통제감, 사용의지, 동기와 같은 각 개인인의 내적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최근 소수의 일부 연구들이 콘돔사용을 한 개인의 행동결정과정으로 보지 않고 타인과의 협응적 행동결정과정으로 이해하는 콘돔협상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대학생들의 콘돔협상과정에서 선호되는 콘돔사용설득전략과 콘돔포기설득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186명의 대학재학생에게 콘돔을 사용하고자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자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 가장 사용할 것 같은 전략을 자유응답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그 전략들과 성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관련연상단어와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 통제감, 의도와 행동 등을 측정하였다. 한국대학생들의 콘돔사용설득전략유형은 임신위협성강조, 책임감, 상대방배려, 성관계거부, 질병예방, 직접적 요구, 성적만족감무관 순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콘돔포기설득전략유형은 임신위협성안심, 성적만족감강조, 책임감, 직접적 요구, 콘돔불신, 성관계거부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남녀, 성관계유무 등에 따른 차이와 기존 서구연구결과들과의 차이 등을 문화/사회적 특성들의 관점에서 논의하였고, 성교육에서의 여러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콘돔협상, 콘돔사용, 성행동, 성인식, 협상전략, 성차, 문화

*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 김연석, 장웨이, 최수원에게 감사한다.

본 연구는 2005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허태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E-mail : tkhur@korea.ac.kr, Tel: 02)3290-2862

현재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전통문화적 가치관의 붕괴로 인해 성(性)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고 그 심각성은 여러 조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의 출산현황이 1만 4565명에 이르고, 미혼모 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10대 미혼모가 올들어 전체의 40.0%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2006년 11월 15일자). 또한 2005년 표본조사결과 낙태 시술건수는 공식적으로만 35만 여건으로 추산되고, 전체의 42%의 경우는 미혼여성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문화일보, 2006년 10월 11일자). 또 다른 사회적 성문제로 2001년에서 200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명 이상의 국민이 각종 성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도에 성병감염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20-29세의 청년층임을 보여주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감염 숫자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05).

더 나아가 AIDS는 1987년에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에 현재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2005년도에는 67명의 새로운 AIDS 환자가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06).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AIDS 감염경로의 대부분이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립보건원 보도자료, 2003). 현재까지 AIDS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숫자는 적으나,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제약 상 확인되지 않는 감염자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증가추세는 충분히 우려할만하다(손애리, 권동석, 최찬호, 2003). 이러한 현재 우리사회의 성문제들은 이미 외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섰고, 도덕적 윤리적인 교육을 통해 성관계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따라서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

가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할 때, 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에서도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많이 경험한 나라들은 콘돔이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는데 동의하고 콘돔사용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Baldwin, Whitely, & Baldwin, 1990). 특히 피임에 관해서는 콘돔 외에 많은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지만 AIDS를 포함한性病감염에 대해서는 유일한 예방법이기에, 콘돔사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지난 수 십년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응용심리학적 연구주제 중에 하나였다(박상화, 한정호, 2000; Fisher & Fisher, 1992).

반면에 한국에서는 문화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성(sex)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이 일부 의학적 분야가 아니면 연구의 중심이 되어 오지 못했고 그 내용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한국학술정보(주)의 논문검색 사이트(KISS)에서 키워드 ‘콘돔’에 의해 검색되는 34건의 학술논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었고, 29개의 논문이 의학계 종사자의 연구였다. 또한 단지 연구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뛰어넘어, 현재 콘돔사용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연구들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적으로도 콘돔과 그 사용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임신/피임과 연결시키는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콘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박상화와 한정호(1998)의 연구에 따르면, 콘돔을 생각할 때 ‘임신’을 가장 많이 연상하였다. 많은 논문에서도 초기 콘돔개발의 목적인 피임을 주목적으로

성병예방 등은 부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박상화, 임달오, 한정호, 2004; 박상화, 한정호, 1998, 2000, 2001). 이는 대안적인 피임방법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콘돔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전반적인 성관련 주제와 콘돔을 너무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관점들과 연결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혼전/혼외의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통문화에 근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도덕적/윤리적 관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었고, 결국 우리사회의 성관련 문제점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콘돔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학문적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콘돔사용의 본질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콘돔을 너무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이다. 충분히 많지는 않지만 한국의 기존 연구들은 콘돔사용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예를 들어 콘돔사용태도(강희선, 장순복, 2004), 콘돔사용 만족도(박상화, 임달오, 한정호, 2004), 성병/에이즈에 관한 인식(박상화, 임달오, 이봉영, 한정호, 2002) 등에 관해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태도, 인식, 동기, 의지와 같은 한 개인의 내적 변인들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이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태도와 지각되는 사회적 규범, 주관적 통제감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연구(허태균, 한민, 김연석, 2004)와 의사결정이론과 자기효능이론에 근거한 연구(손애리, 조병희, 2003)가 그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콘돔의 사용은 코카콜라와 펩시콜

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와 같은 자율적 요소가 강한 개인적 행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반드시 타인의 개입이 전제되는 대인간 공동의 협응적 행동이다(Fisher & Fisher, 1992). 개인적 행동인 경우에는 행동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태도, 지각된 통제감, 사회적 규범 등의 심리내적요인들과 외적 환경요인들인데, 일반적으로 이때 외적환경요인은 개인에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아닌 환경으로부터 개인으로의 단일방향적인 영향만을 가정하고 있다(Fazio, 1990). 하지만, 콘돔사용의 경우에는 타인이 단지 정적(靜的)으로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일방향적 요인이 아닌 나의 행동에 반응하고 그 반응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적 환경요인이므로, 당연히 콘돔사용행동은 타인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여야만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인 것이다(DeBro, Campbell, & Peplau, 1994; Fisher & Fisher, 1992; Noar, Morokoff, & Harlow, 2002). 따라서 행동의 결정요인으로 개개인의 태도, 가치관, 동기 등의 내적변인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행위 시 그 순간의 역동적이며 상호작용적인 협응의 과정, 즉 콘돔협상이 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콘돔사용의 결정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때 개인적인 기존의 연구에서 주요변인이었던 내적변인들은 실질적으로 콘돔협상과정을 준비시키고 조정하는 콘돔사용행동의 2차적 결정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콘돔에 대한 태도나 콘돔사용의지를 조사한 연구들의 대부분에서 사람들이 콘돔사용이 피임이나 성병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데 동의하고 성행위시 콘돔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높으면서도, 실제로는 지속적인 콘돔사용행동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Baldwin, Whitley, & Baldwin, 1990; O’Keeffe, Nesselhof-Kendall, & Baum, 1990). 미국을 포함한 서구사회에서는 최근 10여년간 간헐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연구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콘돔사용의 협응적 관점에서 콘돔협상이나 콘돔설득전략을 연구한 논문이 전무하다.

콘돔협상(Condom Negotiation)

콘돔협상은 ‘자신이 콘돔을 사용하기를 원할 때 상대방이 콘돔을 사용하게끔 설득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단지 콘돔이나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콘돔사용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는 정도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Noar, Morokoff, & Harlow, 2002). 정보적 요인들과 동기적 요인들을 초월해서, 콘돔협상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콘돔을 사용하게 설득하기 위한 행동적 기술(skill)로서 성관련 위험행동을 피하는 행동결정(특히 AIDS 예방)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안되어져 왔다(Fisher & Fisher, 1992).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10여년전에 있었고 서구에서는 AIDS예방에 관한 노력의 일환으로 콘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콘돔협상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의 수는 매우 적다. 이는 물론 콘돔사용상황이 개인적으로 너무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고,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그 순간의 상황적 특수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Fisher & Fisher, 1992; Pryor & Glenn, 1993). 또한 아마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배경과 심리학적 연구관점과 파라다임이 개인 단위의 분석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과도 일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

해 볼수 있다(황상민, 1995). 따라서 개인의 콘돔사용에 대한 지식과 동기를 높이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통제감파 의지를 높여주면 콘돔을 더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로 대부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Pryor & Glenn, 1993).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서구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성행위시 콘돔주체를 이끌어 내고 콘돔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콘돔협상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설득전략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393명의 이성애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Debro와 동료들이 1994년에 발표한 질적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Debro와 동료들은 콘돔을 사용하도록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전략에 대한 대학생들의 자유응답을, 남녀의 성관계 상황을 사회적 지위나 지배의 관점에서 분석한 McCormick(1979)의 분류체계를 응용해서 6개의 설득전략(보상, 정서적 강압, 위협정보, 속이기, 성적유혹, 성관계거부)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설득전략으로 ‘보상’에는 콘돔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사용했을 때 또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방법들이 포함되었다. ‘정서적 강압’ 전략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와 반대로 콘돔을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들이 포함되었다. ‘위협정보’ 전략에는 성병이나 AIDS와 관련된 위험성을 강조 또는 무시하는 방법을 통해 콘돔을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포함되었다. ‘속이기’ 전략은 상대방에게 거짓의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성적유혹’은 상대방의 콘돔에 대한 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성적흥분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포함하였다. ‘성관계 거부’전략

은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콘돔을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성관계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위협을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였다.

반면에 콘돔협상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문항을 개발한 Noar와 Morokoff, Harlow의 연구(2002)에서는 상대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추가적인 설득전략(관계규정, 독재적 지시, 직접적 요구)을 포함하여 양적분석방법을 통해 새로운 6가지 전략을 추출하였다. ‘성관계 거부’, ‘성적유혹’, ‘속이기’ 그리고 ‘위협 정보’ 전략은 DeBro와 동료들의 연구(1994)와 일치했지만, 새로이 ‘직접적 요구’와 ‘관계규정’ 전략이 추출되었다. ‘직접적 요구’ 전략은 그냥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콘돔사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관계규정’ 전략은 상대방과의 정서적 관계(사랑, 믿음, 배려)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콘돔사용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용하여 설득하는 방법들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일부 연구들에서 설득전략에 효과성이나 선호도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그 내용이 콘돔협상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기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설득전략에 초점을 맞추거나 콘돔협상이 부수적인 주제였다(Edgar, Freimuth, McDonald, & Fink, 1992; Margillo & Imahori, 1998). 선진국에서도 콘돔협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현재 성관련 연구가 취약한 우리사회의 이러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가 급격한 서구화의 과정에서 무너지면서 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실제 현실간의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는 콘돔협상의 독특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황상민, 김도환, 200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성행위시 위험감수행동으로 미혼모, 성병, AIDS와 같은 성문제에 가장 흔히 노

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20대의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콘돔협상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목적은 한국문화에서 실제 성행위시 사용되는 콘돔협상에서의 설득 전략을 탐색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협상과 설득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개입되는 콘돔사용 상황을 현실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안전한 성문화의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콘돔설득 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콘돔설득전략을 체계화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서구문화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발견된 콘돔설득전략이 한국 성문화의 특수성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대학생이 사용하는 콘돔설득전략을 개방형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여, 이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을 근거로 탐색적인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방 법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콘돔사용(사용거부)설득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콘돔사용행동의 예측변인으로 연구되어온 콘돔사용에 대한 개인적 태도와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통제감, 주관적 규범,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경험을 측정하여 콘돔 사용(사용거부) 설득전략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

서울에 소재하는 모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

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분석 대상은 총 186명으로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85명(45.7%), 여학생은 100명(53.8%)이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0명(53.8%)이었고, 그 중 콘돔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91명이었다.

연구 절차

대학생들이 성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콘돔사용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의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관계 연상단어과제'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관계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를 솔직하게 순서대로 3가지 적게 하였다. 그 후에 계획된행동이론(Ajzen, 1988)에 근거하여 '성관계시 콘돔사용하기'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태도, 주관적 규범과 콘돔 사용 행동 의도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을 위해 허태균, 한민과 김연석(2004)이 Madden 등(1992)의 측정문항을 기초하여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통제감은 3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태도는 5문항, 주관적 규범은 3문항, 행동의도는 3문항으로 모두 7점(1-7)척도로 구성되었다. 지각된 통제감은 성관계시 콘돔사용을 얼마나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도를 묻는 5개 문항은 콘돔사용과 관련된 정서적 평가를 묻고 있고,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콘돔사용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도는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려 하는 의지를 묻는 문항들로 측정되었다. 1)

콘돔사용관련 선택형질문이 끝난 후에 응답

한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이성친구에게 콘돔을 사용하거나 포기하도록 설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콘돔설득전략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상황적 특수성이나 개인적 특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성관계 관련 상황을 사용하였다(DeBro, Campbell, & Peplau, 1994).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콘돔사용상황을 포괄하는 모든 가능한 설득전략을 조사하고 유형화하기 위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상황으로 지시문을 제공하였다. 즉 지시문에서 '현재 이성친구나 미래의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는 상황'을 상상하게 한 후 자유롭게 기술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다음과 같다.

<콘돔 포기 설득 조건>

나의 파트너는 콘돔을 사용하길 원하는데, 나는 콘돔을 사용하길 원치 않는다. 이때 상대방을 콘돔사용을 포기하도록 설득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파트너에게 할 말을 세 가지 순서대로 적으시오

<콘돔 사용 설득 조건>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나는 콘돔을 사용하길 원하는데, 나의 파트너는 콘돔을 사용하길 원치 않는다. 이때 상대방이 콘돔사용을 사용하는데 동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여러분이 파트너에게 할 말을 세 가지 순서대로 적으시오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콘돔사용관련 척도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통제감 - Cronbach $\alpha = .737$; 태도 - Cronbach $\alpha = .788$; 주관적 규범 - Cronbach $\alpha = .597$; 행동의도 - Cronbach $\alpha = .958$.

위의 개방형 질문을 끝낸 후에 상관계 경험 유무와 콘돔사용 경험 여부를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설문참가자의 성별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을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은 진지하고 솔직하게 질문에 답하였으며, 이 주어진 설문을 완성하는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분석 절차

상관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상관계 연상 단어)와 파트너가 콘돔 사용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할 말(콘돔포기설득전략)과 콘돔을 사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할 말(콘돔사용설득전략)에 대한 응답들과 같은 개방형 질문의 자료는 ‘의미나 내용’면에서 유사한 응답 내용들을 소다발로 묶은 후 다시 의미 및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하위 다발을 중다발로 묶고, 다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 대다발로 묶어나가는 점진적 확대다발화를 시행하여 분류하였다(박정열, 최상진, 2003). 심리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갖는 내용을 묶는 과정으로, 여기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는 응답도 심리적 성격 면에서 검토하여 상이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다발을 해체.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차원의 응답범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즉 피험자가 기록한 500개의 콘돔사용설득전략과 콘돔포기전략반응들을 모두 나열한 후에, 중복되고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고 군집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같은 분류에 포함되기 힘든 군집들이 남을 때까지 줄여갔다. 본 논문의 저자가 아닌 질적분석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심리학 박사)가 1차 분석을 하였고, 본 논문의 제 1저자와 2명의 대학원생이 합의를

거쳐 최종분석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서구문화에서의 콘돔설득전략을 체계화한 연구들(DeBro, Campbell, & Peplau, 1994; Noar, Morokoff, Harlow, 2002)에서 제안된 유형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범주들을 기준으로 설문참가자의 각 응답을 코딩하여 모든 응답을 설득전략유형 중 하나로 코딩하였다. 이때 각 피험자들이 단어연상문항과 설득전략문항에서 각각 3개씩의 응답을 순서대로 기록하였으므로, 그 순서에 따라 정보의 중요성이 다르다. 이는 기억에서 접근가능성이 특정개념의 중요성을 반영하므로 회상의 순서가 의미 있는 정보일 수 있다는 제안에 근거하고 있다(Higgins, 1996). 즉,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두 번째 기록한 것보다는 중요시되고(먼저 연상되거나 선호되는 전략), 두 번째 기록된 것은 세 번째 기록된 것보다 중요하며, 세 번째 기록된 것은 전혀 기록되지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도를 반영하여, 정보의 가중치를 주기 위하여 피험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3점, 2점, 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자유응답 문항에서 여러 반응을 기록하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제 1 응답만 분석할 때 생기는 정보의 손실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었다(허태균, 박정열, 2004). 이렇게 가중치가 주어진 점수들을 사용하여 각 설득전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치 빈도’를 수량화 되었다. 따라서 ‘가중치 빈도’는 단순히 피험자들이 각 전략을 기술한 숫자가 아닌, 그 숫자에 인지적 접근가능성의 영향을 받는 기술된 순서를 반영한 가중치가 주어진 빈도이다.

결 과

성경험 및 콘돔 사용 빈도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경험 유무와 콘돔사용 유무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한 결과 100명(55.2%)의 학생들이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남학생은 응답자의 64명(전체 남학생 중 75.2%), 여학생은 36명(전체 여학생의 36%)이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다양한 사회조사의 결과(예, 채규만, 정민철, 2005: 남자대학생-75.9%, 여자대학생-30.7%)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콘돔 사용 유무는 남학생의 64.8%, 여학생의 35.2%가 콘돔을 사용해 보았고 전체 콘돔 사용 비율은 54.8%였다. 성경험과 콘돔 사용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chi^2=27.803, p<.001; \chi^2=22.343, p<.001$)

성관계 연상 단어의 내용 및 빈도 분석

성관계연상단어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성관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성행위, 쾌락, 임신, 상대방, 사랑, 결혼, 두려움, 기타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범주별 가중치 빈도의 평균은 아래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적 성행위(M = 1.48, SD = 1.96) 자체가 가장 높은 가중치 빈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된 성관계의 상대방(M = 0.84, SD = 1.33), 그 다음으로 쾌락과 사랑이 동일한 가중치 빈도(M = 0.75, SD = 1.321, SD = 1.377)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의 비슷하게 임신(M =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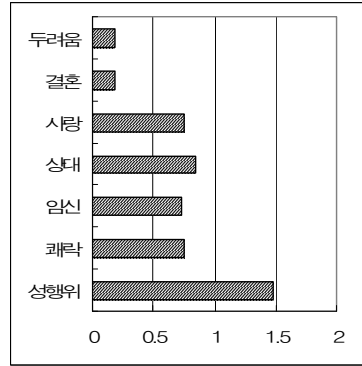


그림 1. 성관계를 떠올렸을 때 연상단어 가중치 빈도

SD = 1.258)도 비슷하게 연상되었다. 상대적으로 결혼(M = 0.19, SD = .654)과 두려움(M = 0.19, SD = .643)은 가장 낮은 가중치 빈도로 연상되었다.

콘돔사용설득전략에 대한 내용 및 빈도 분석

콘돔사용설득전략을 묻는 자유응답문항에 피험자들이 기록한 모든 설득전략을 내용분석한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7개의 범주(임신위험성 강조, 상대방 배려, 직접적 요구, 책임감, 성관계 거부, 성적만족감 무관, 질병예방)가 추출되었다. 직접적 요구와 성관계 거부는 기존의 연구들(DeBro, Campbell, & Peplau, 1994; Noar, Morokoff, & Harlow, 2002)에서 추출된 범주들과 정확히 일치였다. 그리고 성적만족감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것은 콘돔을 사용했을 때의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기존 연구의 보상전략과 유사하였다(DeBro, Campbell, & Peplau, 1994). 기존의 관계규정전략은 현재의

표 1. 콘돔사용설득전략 유형

설득 유형	N(%)	반 응 예 들
임신위험성 강조	107(41)	지금 임신가능 기간이다 임신하고 싶지 않다 안전한 피임법이다
상대방배려	36(14)	널 위해서 쓰는 거다 나를 위한다면 사용하자 우리 둘을 위한 것이다
책임감	27(10)	책임질 수 있어? 잘못되면 책임 질거야? 지킬 건 지키자
직접적 요구	19(7)	나는 꼭 사용해야겠어 내 부탁대로 해줘 내가 원하는 일이다
성관계거부	30(11)	사용안하면 안해
성적만족감 무관	10(4)	기본과는 상관없어
질병 예방	11(4)	성병 예방 차원 에이즈 걸릴 수 있다
기타	20(8)	
총 계	260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상대방배려와 유사하고, 부분적으로는 미래계획을 강조하는 인지적 측면인 책임감으로 세분화되었다. 임신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서구의 연구에서의 위험정보전략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위험정보전략은 질병위험에 거의 일치하고, 서구의 자료에서는 임신위험성이 거의 보고되지 않는 점과 본 자료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다는 의미에서 독립적인 범주들로 분류되었다. 기타 20개의 무성의한 응답은 설득전략의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위의 추출된 범주를 기준으로 피험자들이 기록한 모든 콘돔사용설득전략을 가중치를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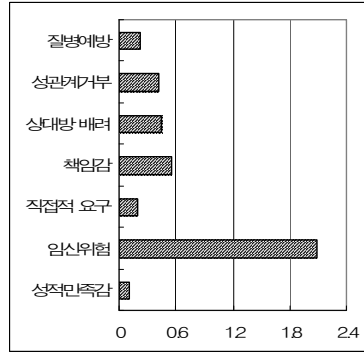


그림 2. 콘돔사용설득유형 가중치 빈도

어 코딩하여 수량화하였을 때, 전략에 대한 가중치 빈도는 그림 2에 묘사된 바와 같이 ‘임신위험성전략’이 가장 높았다(M = 2.08, SD = 1.853). 다음으로 책임감을 강조하는 전략(M = 0.55, SD = 1.076), 상대방 배려전략(M = 0.44, SD = .975), 성관계 거부(M = 0.41, SD = .892), 질병예방(M = 0.22, SD = .682), 직접적 요구(M = 0.19, SD = .602), 성적만족감(M = 0.11, SD = .452) 순으로 선호되었다.

콘돔사용포기설득전략에 대한 내용 및 빈도 분석

콘돔사용포기설득전략을 묻는 자유응답문항에 피험자들이 기록한 모든 설득전략을 내용분석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6개의 범주(임신위험성 안심, 성적만족감 강조, 직접적 요구, 책임감, 성관계 거부, 콘돔불신)가 추출되었다. 콘돔사용설득전략의 임신위험성, 성적만족감, 직접적 요구, 책임감, 성관계거부와 관련된 범주들이 추출되었지만, 일부 문항들은 피임과 질

표 2. 콘돔사용포기설득전략 유형 빈도

설득 유형	N(%)	반 응 예 들
임신위험성 안심	92(38)	남들도 다 그냥 해 가임기간이 아니다 다른 식으로 피임하자
성적만족감 강조	75(32)	느낌이 안 좋다 즐거움이 적다 기분이 불쾌하다
직접적 요구	31(13)	나는 콘돔이 싫다 꼭 사용해야 왜? 오늘만 안 될까?
책임감	20(8)	내가 책임진다 날 믿어라 결혼하자
성관계거부	6(3)	콘돔 쓰면 안 할래
콘돔불신	5(2)	불량품이 많다
기타	11(5)	
총 계	240	

병예방을 모두 포함한 콘돔의 기능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여 독립적인 범주로 통합되었다. 콘돔사용설득전략에서의 배려감을 강조하는 전략은 콘돔사용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타 11개의 무성 의한 응답은 설득전략의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위의 추출된 범주를 기준으로 피험자들이 기록한 모든 콘돔사용포기설득 전략을 가중치를 주어 코딩하여 수량화하였을 때, 전략에 대한 선호도는 그림 3에 묘사된 바와 같이 여전히 '임신안심전략'이 가장 높았다($M = 1.51$, $SD = 1.834$). 콘돔사용설득전략에서와는 달리 성적만족감을 강조하는 전략($M = 1.33$, $SD = 1.726$)이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책임감을 강조하는 전략($M = .48$, $SD = 1.140$), 직접 거부($M = .40$, $SD = .988$), 콘돔불신($M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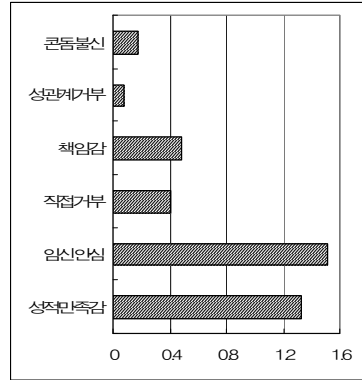


그림 3. 콘돔사용포기설득유형 가중치 빈도

$SD = .668$), 성관계 거부($M = .08$, $SD = .343$) 순으로 선호되었다.

콘돔사용전략 간 차이 분석

일부 콘돔사용포기전략과 사용설득전략들에서 실험참가자들은 동일한 주제를 반대로 이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임신위험성을 콘돔사용설득에서는 임신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콘돔포기설득에서는 임신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에 관한 콘돔사용전략과 포기전략들(임신, 성관계 거부, 성적만족감, 직접적 의사표현)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증을 수행하였다. 콘돔사용포기 전략인 임신안심과 사용설득전략인 임신위험의 분석 결과 사용설득전략인 임신 위험($M = 2.08$, $SD = 1.853$)이 임신 안심($M = 1.51$, $SD = 1.83$) 전략보다 상대적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 = -3.556$, $df = 185$, $p < .001$) 또한 사용설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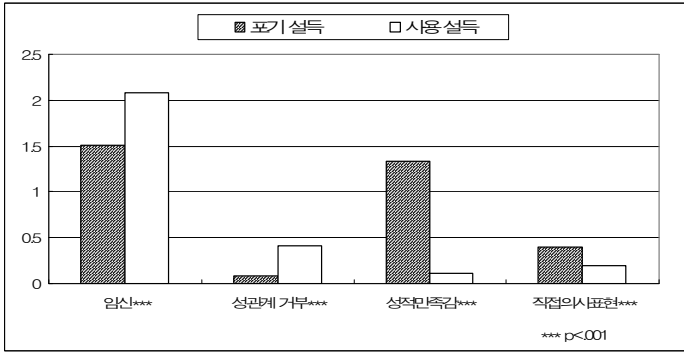


그림 4. 콘돔사용전략 간 차이분석

략의 성관계 거부(M = .41, SD = .892)가 포기전략으로써의 성관계 거부(M = .08, SD = .343)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되었다($t = -4.993, df = 185, p < .001$). 성적 만족감에 대한 전략사용에서는 포기전략으로써 성적 만족감 향상(M = 1.33, SD = 1.726)이 사용설득 전략인 성적 만족감(M = .11, SD = .452)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t = 9.310, df = 185, p < .001$). 직접 의사 표현을 한 전략의 경우 포기전략(M = .40, SD = .988)으로 사용설득전략(M = .19, SD = .602)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t = 2.942, df = 185, p < .001$). 반면에 책임감 전략 사용에서는 콘돔사용포기전략과 사용설득전략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4).

성관련 태도변인들과 연상단어, 콘돔사용전략의 상관관계

연상단어와 성관련 태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행위’연상의 가중치 빈

도와 콘돔 사용 태도와 부적상관($r = -.173, p < .05$)이 있었고 콘돔 사용 의도($r = -.153, p < .05$)와도 부적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외의 태도와 연상단어 사이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콘돔사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들 사이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성적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이 임신을 안심시키는 전략($r = -.216, p < .01$)과 직접거부($r = -.171, p < .05$) 그리고 책임감 전략($r = -.183, p < .05$)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나머지 전략 간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콘돔사용설득전략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신 위험 전략

표 3. 콘돔사용설득전략과 콘돔사용 태도와 의도 간의 상관관계 (n=186)

	콘돔사용태도	콘돔사용의도
성관계 거부 전략	.204*	.183*

* p<.05

이 책임감 각성 전략($r = -.189, p < .01$)과 상대방 배려 전략($r = -.171, p < .05$)과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성관련 태도변인들과 콘돔사용포기 전략 간의 상관분석 결과 인신을 안심시키는 전략과 콘돔 사용 통제감 만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55, p < .05$) 이에 반해 성관련 태도 변인들과 콘돔사용설득전략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성관계 거부 전략과 콘돔 사용 태도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204, p < .05$)을 나타내었고 콘돔 사용 의도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183, p < .05$)을 보여주었다(표 3). 콘돔사용설득 전략중 하나인 책임감 각성 전략도 콘돔 사용 의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155, p < .05$). 나머지 다른 전략과 성관련 태도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콘돔사용포기전략과 콘돔사용설득전략에서의 성차²⁾

콘돔사용포기전략

콘돔사용포기전략 유형의 사용의 성차를 알

- 2) 성별, 성경험유무, 콘돔사용경험유무를 독립변인으로 각 콘돔설득전략에 대한 3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콘돔사용이 성적만족감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콘돔사용설득전략에서 성별과 성경험유무 간의 이원상호작용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성경험이 있는 여자대학생($M = .25$)은 성적만족감과 무관하다는 전략을 성경험이 없는 여학생($M = .02$)에 비해 더 선호했지만, 남자대학생들에게서는 성경험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그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 단계에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성급한 해석을 힘들게 하고, 추가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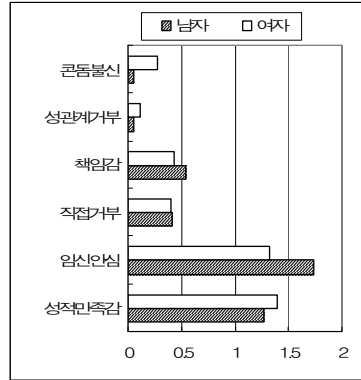


그림 5. 콘돔사용포기전략의 성차

아보기 위해 각각의 전략을 종속변인으로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콘돔을 불신하는 전략에서만 여자($M = .28, SD = .854$)가 남자($M = .05, SD = .305$)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t = -2.389, df = 183, p < .05$ (그림 5)). 다른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콘돔사용설득전략

콘돔사용설득 전략 유형의 사용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전략 유형에서만 여자($M = .53, SD = .989$)가 남자($M = .28, SD = .750$)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유의미도에 근접했다($t = -1.891, df = 183, p = .06$). 나머지 전략에서는 유의미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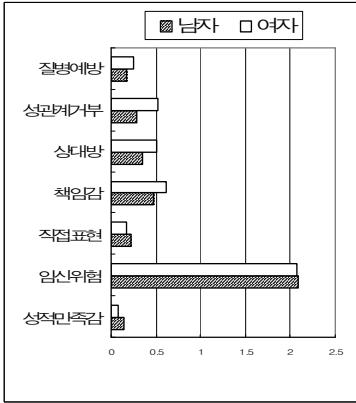


그림 6. 콘돔사용설득전략의 성차

성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성경험 유무에 따른 콘돔사용포기전략 유형의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전략을 종속변인으로 성경험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임신안심 전략 유형에서만 성경험이 있는 사람(M = 1.94, SD = 2.019)이 없는 사람(M = 1.04, SD = 1.470)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t = 3.366, df = 179, p < .001$) 다른 전략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방법으로 성경험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콘돔사용설득전략 유형을 종속변인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 임신위험 전략을 경험한 사람(M = 2.45, SD = 1.806)이 경험이 없는 사람(M = 1.70, SD = 1.833)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t = 2.746, df = 179, p < .01$). 또한 성관계 거부 전략에서는 경험이 없는 사람(M = .57, SD = 1.012)이 경험한 사람(M = .31, SD = .787)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도에 근접하였다($t = -1.928, df = 179, p = .055$).

콘돔 사용 유무에 따른 차이

콘돔 사용 유무에 따른 콘돔사용포기 및 콘돔사용설득전략 유형의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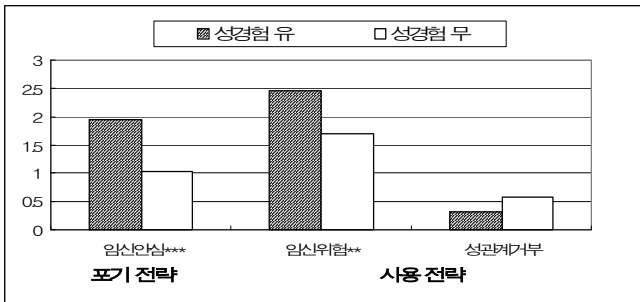


그림 7. 성경험 유무에 따른 전략 사용의 차이

p<.01, *p<.001

기고 각각의 전략을 종속변인으로 콘돔 사용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콘돔사용포기전략의 경우 임신안심 전략에 대해서 콘돔을 사용해본 사람($M = 1.92, SD = 1.962$)이 사용 안 해본 사람($M = 1.25, SD = 1.669$)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t = 2.339, df = 164, p < .05$). 그 이외의 전략 사용에서는 콘돔 사용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콘돔사용설득전략 유형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전략 사용에서 콘돔 사용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한국대학생들의 콘돔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콘돔사용설득전략과 콘돔포기설득전략을 물었고, 그 응답들을 분류하여 전략들을 유형화하였다. 콘돔사용설득전략은 7개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는데, 한국대학생들은 임신위험성 강조, 책임감강조, 상대방배려, 성관계거부, 질병예방, 직접적 요구, 성적만족감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반면에 콘돔포기설득전략으로는 6개의 유형이 추출되었는데, 임신위험성 안심시키기, 성적만족감 강조, 책임감, 직접적 거부, 콘돔불신, 성관계 거부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와 선호도에 대한 결과에서 기존의 서구연구결과들과 대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임신의 위험성이 콘돔사용과 포기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콘돔설득전략을 유형화한 기존의 서구의 연구결과들(DeBro, Campbell, & Peplau, 1994; Noar, Morokoff, & Harlow, 2002)에서는 피임은 독립된 유형으로 분류되지도 않았고 응답에서도

거의 보고되지 않았지만, 유독 본 연구에서는 임신위험성을 강조하거나 임신위험성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 콘돔을 사용하도록 설득하거나 포기하게 설득하는 경우 모두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 연구의 성관계 관련 자유연상단어 과제에서도 임신이 두 번째로 쉽게 연상되는 단어였다.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콘돔뿐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 임신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경신(2001)의 대학생 성의식 실태분석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성교육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임신, 출산, 피임과 관련된 주제들이었고, 이임순과 박은희, 이정재(2006)의 연구에서 실제로 대학생의 92%가 성관계시 임신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연결하여 본 연구 결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콘돔을 피임의 수단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다양한 피임방법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으므로 실제로 단지 피임만을 위해서 콘돔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이 피임에 대한 지식이 낮고 콘돔을 가장 유력한 피임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최소영, 김영혜, 오현숙, 2004)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나라 콘돔사용의 비율이 낮고, 많은 성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콘돔은 피임보다는性病이나 AIDS의 예방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인데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성관계시 상대방이 다른 피임법을 제안하였을 때 결국 콘돔사용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대학생들의 콘돔협상에서 기존 서구연

구와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대학생들이 성관계거부전략을 상대적으로 덜 선택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연구들(DeBro, Campbell, & Peplau, 1994; Kline, Kline, & Oken, 1992)에서 일반적으로 성관계거부는 콘돔협상, 특히 콘돔사용설득전략에서 매우 선호되는 전략이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대학생들은 성관계거부전략을 상대적으로 거의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문화가 대인관계의 조화와 원만함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또는 관계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김동직, 한성열, 1998; Triandis, 1995),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전략이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기존 연구 결과들과의 또 다른 특징은 책임감을 강조하는 전략을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가 서구사회보다는 인간관계에서의 의무나, 특히 성관계에 따르는 인간관계적 책임이 심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콘돔사용과 관련된 태도와 콘돔사용의도와 콘돔설득전략들 사이에 전반적인 큰 경향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성관계거부’전략만이 콘돔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콘돔사용에 대한 강한 의도 모두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비교적 콘돔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성향이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강한 설득전략인 ‘성관계거부’전략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했듯이 이 전략은 대학생들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전략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콘돔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성향과 실제 행동전략 간의 불일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콘돔사용과 관련된

내적변인들과 콘돔설득전략들 간의 낮은 관련성은 콘돔협상과정이 개개인의 행동결과과정과 상대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음도 제한한다. 더 나아가 콘돔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사용의도를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효과적인 설득전략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교육의 발전 필요성을 의미한다(Fisher & Fisher, 1992).

콘돔협상에 대한 성차비교분석은 콘돔협상에서 성관계거부전략을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쓰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도에 근접했는데($p = .06$),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관되어 어떤 문화적 특성보다는 보편적 남녀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겠다(Kline, Kline, & Oken, 1992). 또한 기존의 한국대학생들의 콘돔사용설득전략과 콘돔포기설득전략에 대한 선호에서의 차이를 보면, 임신위험성과 성관계거부는 사용설득에서 더 선호되고 반대로 성적만족감과 직접적의사표현은 콘돔포기설득에서 더 선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성적만족감이 콘돔사용설득전략으로는 가장 낮은 빈도가 보고되지만 콘돔포기설득전략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은 콘돔이 성적만족감을 낮출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이 결과는 많은 콘돔사용을 권장하는 성교육에서 콘돔의 사용이 성적만족감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아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제한한다. 본 연구를 성교육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성교육이 지나치게 임신, 피임에 대한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콘돔의 기능이 피임으로만 치중되어 있다면, 이는 성관계시 콘돔사용을 설득

해야 하는 사람들의 협상능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콘돔사용설득전략과 콘돔포기설득전략 모두에서 임신위험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온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즉 콘돔을 포기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는 사람이 대안적인 피임방법을 잘 알고 있고, 그 방법을 제시했을 때 콘돔사용을 주장하는 사람의 설득논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교육이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내용만을 다루지 않고, 또한 단지 콘돔에 대한 태도나 콘돔사용 동기를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관계 상황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행동적 기술, 즉 콘돔협상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가 성행동과 콘돔사용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교육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제한점으로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본 연구가 모든 인구집단을 한 연구에 모두 포함시킬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콘돔사용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사회 전체 인구에게로 일반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구의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의 결과가 차이가 있듯이, 세대와 같은 우리문화 내의 하위 집단에 따른 추가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중치 빈도를 구하는 과정에 임의적으로 1, 2, 3 순위의 반응에 3, 2, 1점을 부여했다. 이는 기억의 접근가능성을 반영하고 정보의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가중된 수치의 차이가 실제 인지적 또는 심리적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개방형 질문에서 하나만을

물어보는 방법이나 여러 개를 물어보고 첫 번째 반응만을 측정하는 방법 또한 인지적 또는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 또한 동일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후속연구들을 통한 반복검증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서 어떤 콘돔설득전략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유형화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각 설득전략과 관련된 주요 변인에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의 일부 연구들은 각 설득전략에 대한 주관적 평가(편안함, 직접성, 효과성) 등을 조사하였는데, 설득전략에 대한 선호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하여, 현재 후속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콘돔설득전략을 조사하였지만, 실제로 성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한 콘돔설득전략에 따라 상대방을 설득하려 할 때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행동을 바로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은 그 나름대로의 설득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이때의 본인의 설득전략의 변화라든지, 뒤따르는 행동을 모두 연구해야지만 진정한 콘돔협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후속연구들은 콘돔사용에 대한 진정한 협응적 관점의 연구로의 발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연구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콘돔설득전략이 한국사회의 모든 연령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최초의 성경험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고 안전하지 않은 성행동에 가장 강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노년층의 성생활이 활발해지고 있고(이영균, 성경원, 2005) 혼외정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희선, 장순복 (2004). 대학생의 콘돔사용 태도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5), 751-759.
- 김경신 (2001). 대학생 성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81-201.
- 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 박상화, 임달호, 한정화 (2004). 우리나라 유배우(15-49세)의 콘돔사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구의학연구논집*, 17, 96-100.
- 박상화, 한정호 (1998). 서울지역 성인 남성의 콘돔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인구의학연구논집*, 11(1), 51-74.
- 박상화, 한정호 (2001). 콘돔의 피임효과. *인구의학연구논집*, 14(1), 17-21.
- 박상화, 한정호 (2000). 콘돔사용과 성병 및 에이즈 예방. *인구의학연구논집*, 13(1), 66-73.
- 박정열, 최상진 (2003). 금기어(禁忌語)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1), 45-61
- 손애리, 권동석, 최찬호, (2003). 에이즈 예방 청소년 동료지도자 프로그램 평가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3), 281-299.
- 손애리, 조병희 (2003). 전국 도시주민들의 콘돔사용 실태 및 콘돔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8(2), 76-94.
- 이영균, 성경원 (2005). 노년기 성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노인복지연구*, 28, 296-316.
- 이임순, 박은희, 이정재 (2006). 한국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실태조사. *대한산부학회지*, 49(1), 55-72.
- 채규만, 정민철, (2004).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869-886.
- 최소영, 김영혜, 오현숙 (2004). 10대 여성의 성행동, 임신실태 및 피임지식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 10(1), 42-50.
- 허태균, 박정열 (2004). 실패한 여가의 심리학적 의미: 무슨 여가를 왜 실패하는가? *한국여가학연구*, 2(1), 69-85.
- 허태균, 한민, 김연석 (2004). 성행위시 위험감수 의사결정에서 남녀차이: 콘돔사용과 계획된 행동이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69-87.
- 황상민 (1995). 한국인의 협상마인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155-175.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Dorsey
- Baldwin, J. I., Whitely, S., & Baldwin, J. D. (1990). Changing AIDS- and fertility-related behavior: The effectiveness of sexual education. *Journal of Sexual Research*, 27, 245-262.
- DeBro, S. C., Campbell, S. M., & Peplau, L. A. (1994). Influencing a partner to use a condo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65-182.
- Edgar, T., Freimuth, V. S., Hammond, S. L., McDonald, D. A., & Fink, E. L. (1992). Strategic sexual communication: Condom use

- resistance and response. *Health Communication*, 4, 83-104.
- Fazio, R. H. (1990). Multiple processes by which attitudes guide behavior: The MODE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3, 75-109.
- Fisher, J. D., & Fisher, W. A. (1992). Changing AIDS-risk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11, 455-474.
- Higgins, E. T. (1996). Knowledge activation: Accessibility, application, and salience.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133-168). New York: Guilford Press.
- Kline, A., Kline, E., & Oken, E. (1992). Minority women, and sexual choice in the age of AID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4(4), 447-457.
- Madden, T. J., Ellen, P. S., & Ajzen, I. (1992). A Comparis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213-219.
- Margillo, G. A., & Imahori, T. T. (1998). Understanding safer sex negotiation in a group of low-income African American women. In Roth, N. L. and Fuller, L. K. (Eds.), *Women and AIDS: Negotiating safer practices, care, and representation*, pp. 43-69.
- Noar, S. M., Morokoff, P. J., & Harlow, L. L. (2002). Condom negotiation in heterosexually active men and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ndom influence strategy questionnaire. *Psychology and Health*, 17, 711-735.
- McCormick, N. B. (1979). Come-ons and Put-offs: Unmarried students' strategies for having and avoiding sexual intercours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 194-211.
- O'Keefe, M. K., Nesselhof-Kendall, S., & Baum, A. (1990). Behavior and prevention of AIDS: Bases of research and interven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1), 166-180.
- Pryor, J. B., & Glenn, R. D. (1993). *The social psychology of HIV infection*. NJ: Hillsdale.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 19
2 차 원고 접수일 : 2007. 2. 9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2. 17

Condom negotiation strategi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Interactive perspective of Sexual-risk behavior

Taekyun Hur

Ja Ee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Most previous research on safer sex and condom use has been mainly focused on individual's dispositional factors such as attitudes, perceived control, intention, and etc. However, a few researchers recently started to propose that condom use is not a matter of individual behavioral decision but a product of serious interactive negotiation processes and condom negotiation would be the proximal key-determinant of condom use behaviors. The present research categorized condom-negotiation strategies and preferenc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d examined relationship between the strategies and other sex-related concepts. 186 participants' strategies on a free-response questions of condom negotiation revealed 7 types of persuasion strategies for condom use; Pregnancy risk, responsibility, care for partner, withholding sex, sexual disease, direct request, and sexual satisfaction (in order of preference). 6 types of persuasion strategies for condom avoid were abstracted: Pregnancy free, Sexual satisfaction, responsibility, direct request, unfaith toward condom, and withholding sex (in order of preference). The effects of gender, sexual experience, and culture were found and discussed in their implications for sexual education,

key words : condom negotiation, safer sex, sexual education, condom use, persuasion strategies, gender differences, culture